

청년들 '탈 전남' 심각...전남 10가구 중 1가구 '노인 부부'

전남도, 사회지표 공개...인구 180만4217명 중 65세 이상 26.1% 일자리 부족에 인구 유출 늘어...청년 40% 주거비·취업상담 원해

전남지역 전체 인구는 줄었는데 외국인 인구는 전년보다 무려 20% 이상 늘었다. 1인 가구가 10명 중 셋인데, 이들 중 절반 이상은 1인 여성 가구였다. 10가구 중 5가구의 월 평균 가구소득이 300만원 이상인데,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3명(30.7%)의 월 평균 가구소득은 50만~100만원에 불과했다. 청년(18~45세) 10명 중 4명은 취업 상담·알선, 주거비 등을 지원해주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료품비는 전남지역민이 뽑은 가장 부담되는 생활비였다.

전남도가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 전남 사회지표'를 공개했다.

사회지표는 도민 의식 구조와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각종 시책 수립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전남도는 지난해 8월 30일부터 13일 간 가구·가족, 소득·소비, 노동, 교육, 보건·의료, 주거·교통, 환경, 사회·복지, 여가·문화, 안전, 공동체·사회참여 등 12개 분야를 대상으로 22개 시·군 1만 9116개 가구를 표본조사했다.

◇인구는 줄어도 외국인·65세 이상 인구는 늘어=2024 전남 사회지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47만 874명. 전년 대비 2.9%(1만 3393명) 늘었는데, 전남 전체 인구(180만 4217명)의 26.1%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지표를 확대하면 65세 이상 인구는 48만 6492명으로 더 늘어나는 추세다.

고령화가 심해지면서 생산가능인구도 감소세다.

전남의 생산가능인구는 젊은 층(25~49세)의 '탈(脫) 전남' 영향으로 114만 6000명에 머물렀다. 전년에 걸춰 1.5% 줄었다.

반면, '14세 이하' 인구(18만 7326명)는 전년 대비 4.3%(8439명), '15~64세' 인구(114만 6017명)는 전년 대비 1.6%(1만 8434명) 각각 감소했다.

외국인 증가세는 눈에 띄는 대목이다. 전남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4만 9110명. 전년보다 26.0%(1만 122명)나 늘었다. 국적별로는 베트남(1만 5056명)이 30.7%로 가장 많았고 인도네시아(4461명·9.1%), 중국(3825명·7.8%) 등의 순이었다. 결혼한 뒤 전남으로 온 '결혼이민자 수'(6777명)도 전년보다 2.5% 늘었는데, 10명 중 9명(91.6%)는 여성이었다. 시·군 별로 결혼이민자는 여수시, 영암군이 많았다.

◇30~34세 산모의 출산율 가장 높고=저출산으로 전남 출생아 수는 2019년(1만 832명)부터 꾸준한 감소세다. 2023년 출생아도 7828명에 그쳐 전년(7888명)보다 0.8% 줄었다.

그나마 전남의 합계출산율(2023년 기준)은 가임여성 1명당 0.972명으로 전년(0.969명)보다 0.003명 늘었고 '30~34세' 산모가 출산한 신생아 수가 3517명으로 전년 대비 181명 증가하는 등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였다.

시·군별로는 나주(1.086명), 영광(1.651명)의 합계출산율이 높았다.

도민들이 꼽은 저출산 원인으로는 '자녀 양육비 부담'(27.6%), '비혼 증가 및 늦은 결혼'(23.4%),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14.7%) 등이었고 저출산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청년층 대상 주택 마련 비용 지원', '결혼지원금 지급 확대'로 결혼 장려' 등을 들었다.

◇10가구 중 1가구는 노인 부부=전남 일반 가구(79만 3249가구) 중 가구원 수가 1명인 '1인 가구' 비율은 37.1%로 가장 높았다.

또 전남의 노인부부 가구(9만 4268가구)는 일반가구의 11.9%로, '65~69세'(30.7%), '70~74세'(26.3%), '75~79세'(20.8%) 순이었다. 노인 부부 가구는 시·군별로 여수(11.5%), 고흥(18.8%)이 많았다.

특히 홀로 사는 독거노인 가구도 12만 3303가구(15.5%)에 달해 고령화에 맞춰 종합적 복지 정책을 마련,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령별로는 '65~69세'(22.6%), '80~84세'(21.2%), '70~74세'(19.4%) 순으로 높았다. 시·군별로 독거노인 가구 비중이 높은 지역은 나주(14.2%), 고흥(27.1%)이었다.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도 2021년(327곳)부터 꾸준히 늘어 2023년 기준 351개로 늘었고 입소자도 9306명으로 2021년(9001명)보다 증가했다.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3명(30.7%)의 월 평균 가구소득은 50만~100만원에 불과했다. 65세 이상 월평균 소비도 50만~100만원(38.4%)이 가장 높았다. 경제적 취약성이 크다는 얘기다.

◇동부권에 고소득 가구 많아=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비율은 54.2%로 전년보다 10.2%포인트 늘었고 월평균 가구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가구 비율(25.5%)도 전년 대비 7.9%포인트 증가했다. 월평균 소득이 '500만원 이상'의 고소득가구는 동부권이 32.4%로 광주근교권(19.0%), 서남권(22.6%), 중남부권(15.1%)보다 높았다. 가구당 부채는 2023년 평균 5146만원으로, 2020년(4545만원)보다 13.2%(601만원) 증가했다.

청년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부족한 데 따른 청년 인구 유출과 관련,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해야 하는 정책으로는 '취업 상담·알선'(25.8%), '주거비 지원'(19.5%), '청년 구직 활동 수당 지원'(11.8%) 등이 꼽혔다.

특히 15~29세와 30~39세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지원 정책은 '주거비 지원'(21.4%, 23.3%), '취업 상담·알선'(19.8%, 21.7%) 등이었다.

도민 10명 중 7명(72.2%)는 자신의 삶에 대해 '대체로 만족'(6명 이상)한다고 했고 도민 2명 중 1명(39.2%)은 전남인으로 소속감 및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입영을 명 받았습니다” 입영장정들이 6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가족들에게 경례하고 있다. (육군 제공)

“일하는 초등학부모 1시간을 책임집니다”...광주시, 10시 출근제 확대

21일까지 참여 사업장 모집...중소사업장 두달간 장려금 80만원 지원

광주시가 일하는 초등 학부모들의 출·퇴근 1시간을 책임진다.

광주시는 “지각장려금”으로 불리며 출·퇴근 시간을 1시간 조정할 수 있는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에 참여할 사업장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는 초·중·고등학교 직원들의 자녀 돌봄 고충 해소를 위해 오전 10시 출근제를 도입하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제도를 이용할 경우 광주지역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초등 학부모 근로자는 최대 2개월 간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 1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출근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로 늦추거나 퇴근시간을 오후 6시에서 오후 5시로 앞당기는 방식이다.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는 학부모에게 임금

삭감없이 1시간을 근로 단축한다는 점과 사업주 및 동료에게도 임금 추가 부담 등이 없다는 점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다. 특히 다자녀 가정의 경우 아이별로 사용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는 저출산 해결의 선도모델로 사업장의 고용 유지·근로자의 돌봄 고충 완화에 크게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실제 경북도는 지난해부터 광주형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광주시는 올해부터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중소기업에 대한 장려금 지원건수와 지원액을 확대한다.

올해 지원건수는 500건으로 지난해 300건보다 크게 늘렸으며, 건당 지원액도 지난해 월 37만 4000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한다.

신청 자격은 300인 미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광주지역 법인 및 사업자등록 사업장으로, 정규직·기간제·대체인력 등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상시근로자면 접수할 수 있다. 학부모는 광주시에서 거주하며 자녀는 광주지역 초등학교에 다녀야 한다. 엄마·아빠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다른 사업장일 경우 동시 지원도 가능하다.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은 2개월간 조정된 출근 시간을 준수한 뒤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장려금 80만원을 지원받는다.

광주시는 21일 오후 2시부터 광주아이키움 플랫폼(www.광주아이키움.kr)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또는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직장전화(062-613-7981)로 문의하면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의회 “시민 안전보험 보장, 15세 미만도 보호 받아야”

정부·국회에 개정 촉구

광주시의회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중 만 15세 미만자는 시민 안전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에 개정을 촉구했다.

광주시의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지원단은 6일 성명을 통해 “시민 안전 보험은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한 안전망이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원단은 “시민 안전 보험은 재난과 사고로부터 피해를 당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지만 현행법상 만 15세 미만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만 15세 미만 희생자는 시민 안전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없다. 재난 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구성원인 아동과 청소년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현실이 가슴 아프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들은 “만 15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시민 안전 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재난으로부터 모든 사회 구성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제22대 국회에 재난처럼 인위적 사고 위험이 낮은 단체보험에 한정해 만 15세 미만자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광주문화신협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